

기업의 정보기술 지배수준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김재전(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영일(동강대학 교수), 박 득(전남대학교 박사과정)
(jaejon.kim@acm.org. 062)530-1436)

요약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보시스템의 활용과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측정과 활용수준에 관한 이슈들은 기업의 정보기술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하므로써 기업의 정보기술전략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정보시스템의 평가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ettinger et al.1994, 1997; Pitt et al.,1995,1997; Van Dyke et al.,1993,1997).

또한 정보기술의 조직차원에서 활용의 증가와 더불어 조직전체의 복잡한 IT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IT를 구현하는데 수반되는 위험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적절한 전략들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Delone and McLean, 1992; Hamilton and Chervany,1981; Pitt et al.,1995).

이러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 IT의 평가나 IS의 측정문제는 다년간에 연구가 이루어져왔고 또한 실무적인 평가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IT지배수준을 평가하는 문제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정보기술 영역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조직차원의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의 통제나 지배수준과 같은 영역에 대한 평가들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 관련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정보기술 평가측면에서 정보기술 통제나 국내에서의 정보기술 지배수준(governance level)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보기술 평가와 관련된 모델을 문헌 고찰해 보고, 이를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계획 및 조직에서 획득 및 구현, 지원, 통제에 이르는 전반에 대해 정보기술 지배수준(governance level)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T효율성 평가 도구를 비롯한 통제모델과 관련하여 IT또는 IS 관련영역의 평가모델들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컨설팅도구를 비교 분석하고 더욱 발전적으로 IT지배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평가모델 또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기술 지배수준에 대한 평가모델은 IT관리 평가를 비롯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경영자의 IT전략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다.